



## 가정

#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 설교

여러분, 학교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숙제를 안 하거나 교칙을 어기면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규칙은 귀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특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큰 돌 위에 말씀을 새겨 두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게 말씀을 기록하여 늘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돌 위에 새겨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은 선물이지만,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성적, 친구 관계, 미래의 꿈—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가입니다. 스마트폰 알람처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큰 돌에 새기듯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새길 때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오늘 네가 여호와와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삶 속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세우셨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따라, 예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걸어갑시다.

